

순천시, '100원 마중택시' 오지마을 주민들에 인기

기존 월 4회 이용에서 5회로 이용 횟수 늘려

대상 지역 11개 읍면동 64개 마을 1500명 혜택

순천시가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100원 마중택시'가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100원 마중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탑승권(카드 형식)과 100원만 내면 자택이나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 지역은 11개 읍면동, 64개 마을로 15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대상 마을은 읍면동 내 마을 소재지와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700m(동은 1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선정 마을 거주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누구나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이용 횟수를 1인당 월 4회에서 5회로 늘렸다.

시 관계자는 "마중택시 이용 횟수 확대로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중택시는 최근 4년간 총 22만 5475회를



오지 주민들이 이용했으며, 장남, 봄·겨울철에 어르신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김승호기자

고흥군,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500여명 참석

고흥군은 17일 고흥문화회관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참여자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를 위해 참여자 모두 함께 "나는 일한다"를 외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축하공연을 1부로 마치고 치매 예방 및 안전교육 등을 2부로 실시하여 일자리 참여자 모두 안전하고 활기차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했다.

군은 올해 140여원의 예산을 투입, 총 3,67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인 "대기하지 않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이행하고자 군비 28억 5천 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경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서비스형' △창업지원을 통한 수익창출을 하는 '시장형' 등 참여자의 수요에 따라 사업을 세분화하여 3개 민간수행기관에서 24개 사업단을 운영한다.

이 날 공영민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재차 당부하면서,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도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일자리 개발에 힘써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식 열어

2023~2027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민이 행복한 양성평등도시 여수' 구현

여수시가 '시민이 행복한 양성평등도시 여수' 구현을 위한 현판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청 정문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현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환경복지위원장 민덕희의원, 이현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장과 단원들, 권영남 여수시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양성평등 성과와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아 2023년~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여성친화기업 선정 및 지원 확대 ▲여성안심프로젝트 운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등 여수시 특성을 반영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나선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실무능력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평등한 일자리가 보장되고, 안심하고 누리며, 일과 생활이 있는 돌봄 도시를 조성해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여수 만들기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2019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이 여성친화도시 세 번째 지정이다.

여수=김현근기자

보성군 "맥류 재생기 지금 웃거름을 주세요"

맥류 풍작 위한 재배 방법 안내

보성군은 맥류가 다시 자라는 생육재생기를 2월 상순으로 판단하고 10일 이내에 웃거름 주기를 당부하며 월동 후 포장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맥류가 생육재생기에 접어들면 10일 이내에 웃거름을 줘야하며 10a(아르)당 요소 9~12kg를 1회 시용한다.

사질토 또는 작황이 불량한 토양은 5kg씩 20일 간격으로 2회에 나눠 시용해야 이

삭당 알 수가 많아지고 등숙률 비율이 증가한다. 또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잡초 발생도 많아지게 되는데, 냉이 등 광엽잡초가 많이 발생한 포장은 벤타존 액제를 처리해야 방제에 효과적이다.

습해로 식물체가 황화현상을 보이면 배수구를 정비하고, 요소 2%액을 10a(아르)당 100ℓ씩 2~3회 뿌려주어 뿌리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토양 진압을 통해 서릿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보성=김덕순기자

광양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지원규모 총 15대...1대당 7백만 원 지원 선착순 접수

광양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71대를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규모는 15대로 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광양시이고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합·승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차를 구매하려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신고예정자이다.

원칙적으로 경유차를 폐차한 후에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되

지만, 특례조항에 따라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난해 11월 1일 이후 폐차하거나 신차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광양시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기후환경팀(061-797-2795)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현근기자

순천농협, 순천 쌀 애용 운동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재)은 최근 순천 쌀 이용 대표음식점인 박규운 회관(대표 고영우, 정급자/연령동 소재)에서 '순천 쌀 이용 대표 음식점 제1호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순천농협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지산지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쌀 판매 점유율 확대를 위해 순천 쌀 애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현판식은 그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앞으로 순천 쌀을 이용하는 지역의 대표 음식점들을 신규 발굴하고 홍보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을 가진 '박규운 회관' 고영우 대표는 "순천농협 브랜드 쌀인 나누우리와 신동진은 미질이 좋아 손님들로부터 밥맛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2023 순천민국 제정원박람회 방문객들에게 밥맛 좋은 순천 쌀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재 조합장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는 것은 생명고인농업을 지키는 첫 걸음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동참을 유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농업 농촌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